

도래하는 과거를 수용하는 트라우마의 능동적인 방편

서길완
(건국대학교)

❖ 국문초록

트라우마 연구는 개인과 집단이 경험하는 대재앙과 재난적 사건을 다루는 데 유용한 모델을 제공해왔다. 대부분 캐시 캐루스를 비롯한 구조주의 트라우마 연구관점이 전형적인 모델이 되어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맥락에 적용되어왔다. “트라우마의 사건-기반 모델”로 일컬어지는 이 연구 모델의 관점은 트라우마적 사건이 있는 그대로 각인되고 과거를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이 관점에서 트라우마적 사건 당사자는 그 사건의 진실을 전승하는 수동적인 담지자가 된다. 트라우마적 주체는 단지 사건을 겪고 견뎌낸 뿐 트라우마를 구성하고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트라우마적 진실은 트라우마 주체의 자율성과 그/그녀의 행위가능성을 대가로 얻어진다.

여기서 문제는 주체의 자율성을 대가로 획득된 진실이 트라우마적 경험을 둘러싼 많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외상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트라우마적 사건 자체보다는 트라우마적 주체의 편에서, 즉 인적인 입장에서 트라우마를 다루는 보다 능동적인 방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구나 최근에는 재난 사건의 이미지가 시청자들에게 생중계로 보여 지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공적인 담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보여진다. 그 만큼 사건들은 보다 더 즉시 트라우마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그들 자신을 트라우마적 피해자로 볼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트라우마를 다루는 능동적인 방편을 탐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논문은 문학과 이론 텍스트를 통해서 트라우마 연구의 전형적인 모델, “트라우

마 사건-기반 모델”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트라우마적 과거가 있는 그대로 도래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가를 드러내 보이고 트라우마 주체의 입장에서 트라우마를 다루는 능동적인 방편으로서 “서사 기억”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도래하는 사건, 「아듀」, 재연, 트라우마적 기억, 서사기억, 현시화, 정면통과

Ⅰ. 들어가며

세계 대전, 홀로코스트, 코소보 사태와 같은 대재앙적 사건들에서부터 가정 폭력과 (아동)성폭력을 둘러싼 혼란스러운 폭로전에 이르는 수많은 충격적인 사건들을 목격하고, 그 충격과 혼란을 트라우마라는 키워드로 풀어낸 20세기는 소사나 펠만(Shoshana Felman)의 표현대로 “트라우마의 세기”(171n 1)였다. 이 같은 풍조를 반영하듯, 1996년에 쓴 책에서 다니엘 섉터(Daniel Schacter)는 사람들의 “감정과 행동에 무의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무언의 트라우마적 기억의 유령”(230)은 수많은 TV드라마와 영화에서 빠져서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세기말까지도 트라우마(기억)가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이었음을 말해준다. 『현재의 과거』(Present Pasts)라는 책에서 안드레아스 훈센(Andreas Huyssen)은 현대인들의 이 같은 “트라우마에 대한 관심”(8)은 다차원적인 담론과 다양한 사실적 요소들에 기인한다고 진술한다. 그 만큼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트라우마에 대한 관심이 편재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에 접어 든 작금은 어떠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21세기도 20세기 후반부의 풍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과거에 비해 대재앙적 사건을 경험하는 속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우리 자신이 직접 개입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경험과 다른 나라들의 극한 사건들을 바로 우리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면서 과거엔 다른 사람의 개인적 상처, 다른 나라 사람들의 집단적 고통경험이었던 것이 지금은 개인적, 그리고 지역적인 집단 혹은 지역의 차원

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더 나아가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멀지 않은 과거(2001년)에 발생한 미국의 9/11 테러사건에서부터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과 재난, 자연 재해들, 그리고 가장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사건에 이르는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을 둘러싼 실시간 영상보도와 그 이미지들에 대한 광범위한 유포와 그에 대한 집단 반응들에서 보여 지듯, 트라우마적 충격은 그 사건을 직접적으로 겪은 사람들 뿐 아니라 그것들을 보고 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을 덮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여 9/11 테러의 경우, 그 사건 직후, “대부분의 신문과 텔레비전 방송국은 주저하거나 상설하지 않고 그것을 국가적 트라우마로 명명했다”(Meek 171).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의 반응 역시 9/11의 상황의 대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알렌 미크(Allen Meek)가 통찰한 바에 따르면, 예전엔 피해자들이 겪은 트라우마가 공적으로 인식되는 데 수 년 혹은 수십 년간의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고도로 발달된 미디어 기술로 말미암아 사건의 파괴적인 이미지들이 “생중계”(17)로 전달되고, 또 반복적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건은 즉각적으로 트라우마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9/11 이후의 많은 실증 연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범주를 TV나 다른 미디어를 통해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고통을 포섭하기 위한 “장거리 트라우마 효과”(distant traumatic effect)(Young 28)에 까지 확대하기도 했다.¹⁾

1) 가령 우리는 9/11 사건 후 병원에서 생긴 한 에피소드에서 바로 “장거리 트라우마 효과”의 대표적인 예를 찾을 수 있다. 9/11사건이 벌어진 뒤 몇 주가 지나서 일면식이 없는 5명의 소녀가 동일한 증상으로 그 의사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 그들 각각은 음식을 삼킬 수 없어 단기간에 엄청난 몸무게가 빠졌다고 한다. 다섯 명 모두 쌍둥이 빌딩이 폭파될 때 날아온 잔해와 건물의 파편이 목에 걸려 그런 증상을 만들어냈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다. 검사 결과, 약간의 수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런 증상을 일으킬 만한 어떤 물리적인 요인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상처입은 뉴욕」 (“Wounded New York”)에서 주디스 그린버그(Judith Greenberg)는 이 소녀들의 증상은 그들이 영상으로 목격한 끔찍한 장면과의 동일시로 인해 생겨났다고 해석한다. 그 장면과의 동일시가 너무 강해서 그것이 그들의 몸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마치 흡연자 옆에서 담배연기를 마시는 간접 흡연자처럼 “이차(간접)적 트라우마”(secondhand trauma)(Ross 73)를 입는 것과 같은 이치로 설명되기도 한다. 지나

주지되다시피, 트라우마는 대재앙, 대격변적 사건과 그로 인해 어떤 한 개인(혹은 집단)의 정체성, 그/그녀(그들)가 밟고 서 있는 삶의 지평과 믿음체계가 뒤흔들리고, 극단적인 경우 그 모든 것이 와해되는 상황을 지칭한다. 이것은 사건 이전과 사후(aftermath) 인식과 존재 방식 사이의 엄청난 간극이 초래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의 정체와 삶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개인 혹은 집단이 경험한 사건의 전후 인식의 간극을 좁히고 재구성하는 일은 곧 치명타를 입은 사람들의 자기 정체성과 삶을 복원하고 치료하는 일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트라우마적 사건과 이미지들이 전지구적이고 동시적이며 반복적인 형태로 전파되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상의 피해자로 여겨질 수 있는 만큼 그들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사후적인 삶의 연속성을 복원하고 회복하는 문제는 현대 미디어 시대의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트라우마에 관한한, 지금까지 트라우마 연구는 대체로 트라우마의 본질적인 특성인 ‘이해불가능성’(uncomprehensibility)과 ‘표상불가능성’(unrepresentability)에 초점을 맞추어 트라우마적 사건의 위압적인 힘과 그 여파를 설명하는 데 역점을 두어왔다. 이 같은 연구 관점에 따르면, 개별 혹은 집단의 이해능력이나 기존의 신념 체계를 넘어서는 위압적인 사건은 경험과 인식 사이의 간극을 초래함으로써 망각이라는 “잠복기”(latency) (Caruth 8)를 산출하고, 그로 인해 사건은 “나중애”(belatedly)(Caruth 4) 피해 당사자도 잘 모르는 병리적인 증상의 형태로 경험된다. 이 연구 관점을 따르는 이론가들은 플래시백, 반복적 행동, 악몽 등과 같은 병리적 증상을 사건과 인식 사이의 “잠복기”에 묻혀 있던 트라우마의 진실이 귀환하는 일종의 특별한 기억의 형태로 본다. 말하자면 트라우마는 ‘이해(표상)불가능성’으로 기입되고,

로스(Gina Ross)는 이 “이차적 트라우마”는 대개 직접적인 피해자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하지만 그 밖의 다른 주변인들에게도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문제는 이“간접적인 트라우마”의 증상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이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에, 9/11을 간접적으로 목격한 뉴욕의 시민들 모두가 그렇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외상 피해자와 같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그것을 통해 증명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해의 틀에 비추어 볼 때, ‘이해(표상) 불가능성’은 트라우마의 진실(실재)을 증명하는 보증자가 되고, 외상의 주체는 그러한 진실을 자기도 모르게 전송하는 수동적인 담지체(bearer)이자 환자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트라우마적 사건과 그것을 경험한 당사자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자가 없기 때문에 ‘빚나간 만남’이 이루어질 밖에 없고, 그럼으로 외상의 주체는 계속해서 병리적인 증상을 발현하는 상황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 관점에서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거 사건과의 직접적인 사후 대면, 즉 “트라우마의 정확한 재현”(an accurate representation of trauma)(Tal 15)이 되는 것이다. 사건 자체의 정확한 환기(recall)와 사건 이외의 어떤 것도 매개되지 않는 직접 전송의 중요성 때문에 “사건 기반(의존적) 트라우마 모델”(the event-based model of trauma)(Gibbs 241)로 일컬어지는 이 연구 관점의 성향은 후기 구조주의의 영향을 받은 캐시 캐루스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개념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그런데 “사건 기반 트라우마 모델”과 같은 트라우마 이론의 연구 관점에 기대서 트라우마적 사건이 수용되고 이해될 경우, 인적 회복(human recovery)의 정신 역학에 대한 관심은 옆으로 밀쳐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트라우마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트라우마적 사건이 얼마나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전송되는가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비정상적인 형태로 과거의 사건을 (재)경험할 수밖에 없는 외상의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그러므로 “자율성과 책임 관념이 위협”(Radstone 14)받는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트라우마가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 주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 능력(agency)과 책임이 부재하고 누락될 경우, 트라우마를 둘러싼 문제 해결은 요원해질 수 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장 루이 귀에 드 발자크(Jean-Louis Guez de Balzac)의 단편 소설 「아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앞으로 살펴볼겠지만, 이 작품은 200 여 년이라는 시간차를 무색케 할 정도로 현대 트

라우마 연구의 지배적 관점을 정확하게 극화해서 보여준다. 『기억·서사』에서 오카 마리(岡真理)도 관찰했듯, 이 작품은 “폭력과 기억, 사건의 표상(불)가능성의 문제를 이미 기입”(68)하고 있다. 트라우마 연구에 대한 앞선 설명에 비추어 볼 때, 이 소설은 현대 트라우마 이론의 지배적인 연구 관점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주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실제 사건을 기록한 신문 기사를 모티브로 삼았다고 알려진 이 소설은 우아한 귀부인이었던 한 여성이 끔찍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기억을 잃고 거리를 떠도는 광인으로 전락했다가 과거의 정확한 기억이 되돌아온 순간, 바로 그 기억 때문에 죽음을 맞게 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룬다. 트라우마적 사건이 있는 그대로 복원되어 전달되는 과정이 예상치 못한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억회복으로 인해 빚어진 이 같은 비극적인 결과는 전술된 “사건 기반 트라우마 모델”의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들에 비추어 볼 때, “사건 기반 트라우마 모델”의 한계점을 보완해줄 보다 능동적이 방편의 트라우마 모델을 발굴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트라우마의 본질적인 특성 상 사건 발생 당시에 문제 해결점을 찾지 못해 사후 다시 그 문제를 되짚어보고 그것을 둘러싼 일련의 문제(특히 치유)들을 다루어야 한다면, 사건 자체 보다는 과거와는 다른 시, 공간적 맥락에 놓인 채 과거와 재조우해야 하는 외상 주체의 인적 회복의 측면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먼저 「아듀」의 내용 분석을 통해 트라우마적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트라우마를 다루는 방식과 그것이 갖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인적 회복, 즉 트라우마적 주체의 입장에서 트라우마를 다루는 방식을 발굴해서 대안적인 방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도래하는 사건”을 통해 본 “사건 기반 트라우마 모델”의 한계

“사건 기반 트라우마 모델”의 한계와 관련해서 「아듀」에 타나는 기억의 문제를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이 소설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필립 드 슈시(Philippe de Sacy) 대령이 친구와 사냥을 하러 나선 길에서 광기

어린 한 여인과 우연히 마주친다. 그 여인은 ‘아듀’(안녕)이라는 단 한마디 밖에 하지 못한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지는 사실이지만, 그 여성은 과거에 필립의 연인이었던 슈테파니 드 방띠에르(Stephanie de Vandieres) 백작 부인이다. 슈테파니는 남편과 함께 나폴레옹 전쟁에서 중군하게 된 필립을 따라서 러시아까지 동행하지만 프랑스군이 퇴각을 거듭하면서 슈테파니 일행은 러시아 군에 포위당하게 된다. 배를 타고 도강(베르지나강)을 하려고 했지만, 나룻배에는 두 사람이 올라 탈 여유밖에 없어서 필립은 슈테파니와 그녀의 남편을 태워 보내고 자신은 강가에 남는다. 나룻배에 오른 슈테파니가 필립을 향해 외친 마지막 한 마디가 바로 ‘아듀’였다.

그런데 필립의 희생 어린 노력에 불구하고 슈테파니는 안전한 곳으로 피하지 못한다. 나룻배에 떨어져 강물에 빠진 슈테파니의 남편이 떠내려 오는 얼음덩어리의 날카로운 부분에 목이 잘려 비참하게 죽게 되고, 슈테파니는 바로 그 현장을 고스란히 지켜보아야만 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슈테파니는 적군의 포로가 되어 2년 동안 위안부로 끌려다니며 성적 유린을 당한다. 몇 년 뒤 슈테파니가 큰아버지에게 발견되었을 때, 그녀는 발가벗겨진 채로 이미 기억을 잃어버린 광인의 상태였다. 필립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귀부인이었던 슈테파니가 지금은 반짐승처럼 변해 과거의 연인이던 그의 모습도 알아보지 못하는 데 큰 충격을 받고, 슈테파니의 기억을 되돌리기 위해 그녀의 치료에 온 힘을 써보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간다. 그가 마지막으로 택한 수단은 겨울 러시아 평원 베르지나강을 모방한 장대한 무대를 만들어 두 사람이 이별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재연하는 일이었다. 그 정경 속에 몸을 맡기고 강에 떠오른 나룻배를 본 슈테파니는 기억을 되찾는다. 그리고 연인 필립의 모습을 똑똑히 확인하자마자 ‘아듀’라는 말만 남기고 심장이 멎어 죽음을 맞는다.

통상적으로 증발된 기억을 회복하는 일은 기억의 누락으로 인해 구멍 난 정체를 바로 잡고 삶을 지속시킬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여겨져왔다. 그런데 스테파니에게 과거경험의 귀환은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 다른 역할을 했던 것일까? 기억이 돌아오자마자 슈테파니가 죽음을 맞이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억·서사』에서 오카 마리는 저명한 페미니스트인 소사나 펠만

(Shoshana Felman)의 분석을 빌어서 슈테파니의 기억회복에 관한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필립의 입장에서 슈테파니의 기억을 되살리는 일은 과거의 연인이었던 그를 알아보게 하고, 그 자신이 사랑했던 우아한 귀부인의 이미지를 복원시켜 다시 한 번 그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이다. 이 모든 노력은 바로 필립 그 자신을 위한 나르시시즘적인 욕망에서 나왔다는 것이 켈만의 해석이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필립의 노력은 헌신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광인이 되어가는 그녀에게 과거의 우아한 귀부인의 이미지와 정상적인 삶을 돌려준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마리는 슈테파니의 입장에서 기억과의 투쟁을 살펴보아야 앞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을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아듀」는 제 3자의 입장에서 슈테파니가 기억을 찾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어 그녀의 속내가 어떠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필립에게 마지막 사랑의 인사만 남기고 폭력적인 사건의 피해자인 슈테파니가 삶의 무대에서 퇴장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로의 복귀가 왜 슈테파니에게 불행한 일이 되는지를 우리 독자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런 까닭에, 마리는 슈테파니가 떠올린 과거의 기억이 아닌 그녀에게 갑자기 “도래하는 사건”(49)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도래하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다. 마리에 따르면, “도래하는 사건”이란 체험 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자기 의지대로 과거 사건을 소환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억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사건의 체험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사건이 귀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부지불식간에 치밀고 들어오는 기억이 좋은 경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끔찍해서 피하고 싶은 것이라면 어떠하겠는가? 슈테파니에게 갑자기 “도래하는 사건”이란 바로 그런 종류의 기억이다. 잔인하리만치 끔찍한 남편의 사고를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2년 여간 적군의 위안부로 성적 유린을 당했던 당시의 경험들은 그녀에게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것이지 않겠는가. 그 만큼 그와 관련된 기억은 철저히 부인되고 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아무리 큰일을 당해도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것을 이해해줄 주변상황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경우엔 피해자가 그 사건을 정면으로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대개 보통 사람들은 일상에서 쉽게 경험되지 않는 한계상황에 대한 물리적, 정신적 대비가 되어있지 않다.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엄청나게 위압적인 사건과 맞닥뜨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상황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고 한다. 정신분석학에서는 바로 이런 회피적 현상을 ‘억압’(repression) 혹은 ‘해리’(dissociation)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전자는 마음의 수직 작용으로 트라우마적 사건을 의식의 아래쪽(무의식)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후자는 수평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의식의 흐름에서 트라우마적 경험을 칸막이 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비록 이 두 개념이 운동의 방향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트라우마적 기억에 관한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의식의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든 아니면 옆으로 칸막이가 쳐지든 간에, 트라우마가 발생할 당시의 경험이 피해자에게 일시적으로(혹은 장기적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파국은 유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대개 이러한 과정은 트라우마가 발생할 당시에 벌어지는 일종의 생존투쟁으로 이해된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부정하고 망각하는 것은 힘없는 피해자가 그/그녀의 존재와 그/그녀가 밟고 사는 세계를 일순간에 박살내려는 괴력에서 벗어나려는 생존방편이 되기 때문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런 과정을 겪고 살아남은 생존자에게 억압되고 해리된 기억이 되살아날 때 발생하는 여파이다. 트라우마 기억의 억압되고 해리된 경험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잊혀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식이나 몸 어딘가에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엄청난 외부자극에 대한 완충장치 없이 그 날의 충격적인 상황과 다시 맞닥뜨리게 된 슈테파니의 경우는 어떠한가? 캐루스로 대표되는 현대 트라우마 이론 연구자들의 표현을 빌어 말하면, 슈테파니에게 “도래하는 사건”은 잠복해 있던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정확히 떠오른 것이다. 대개 과거 경험은 시간의 경과와 기억력의 쇠퇴, 그리고 많은 새로운 경험들의 유입으로 인해 서로 다른 경험들이 뒤섞이고 삭제거나 혼동되기도 한다. 그러나 캐루스와 비슷한 관점에서 트라우마를 해석하는 베셀 반 데르 콜크(Bessel Van der Kolk)와 리타 피슬러(Rita Fislser) 같은 연구자들에 따르면, 트라우마적 경험은 그런 정상적인 의식의 흐름들과 뒤섞이지 않으며, 마음 혹은 뇌의 한 부분

에 연구적으로 “각인되고”(etched) “새겨져서”(engraved)(521) 손상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만약 트라우마적 경험이 거의 손상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럼으로 서슬 퍼런 사건의 칼날에 찢긴 상처가 재소환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비록 시간이 지나고 외부 환경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나, 과거 상태 그대로의 상처를 다시 마주해야 하는 피해자는 그때의 경험과 상처가 너무도 생생하게, 마치 피해를 입은 바로 그 순간의 충격과 아픔으로 되살아 나지 않겠는가?

슈테파니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필립이 행한 ‘실연’(enactment) 작업이 야만적인 폭력성을 지닌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충격을 감당할 수 없어 눈앞에 벌어진 일을 부정한 슈테파니는 그 때의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제대로 인식도 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그런 그녀에게 필립은 급작스럽게 그 사건을 그대로 재경험하게 한 것이다. 그럼으로 슈테파니에게 그 일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되고, 쓰나미와 같이 자기의 힘으로 어찌해볼 도리가 없이 순식간에 밀쳐오는 대재앙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곧 그 사건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폭력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 같은 우려는 슈테파니가 기억을 되찾았을 때 현실로 나타난다. 그녀의 현재에 되불려진 것은 우아한 귀부인으로서의 과거 정체성뿐 아니라 그녀가 도저히 함께 가지고 살아낼 수 없는 위안부의 과거이기도 하다. 현실 세계에 함께 불러 들여진 위안부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귀부인의 자태로 우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리고 은폐해야 하는 오점이 아닐 수 없다. 현실세계에서 공존해서 안 될 바로 그 오점을 마주한 귀부인 슈테파니는 온 몸이 열고 정신이 마비되어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결국, 망각된 기억을 되살려서 사랑하는 연인의 본모습을 찾아주려던 필립의 노력은 오히려 슈테파니의 심장을 멎게 하는 살상 무기가 된 셈이다.

Ⅲ. 외상으로 인해 초래된 기억장애와 마주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아듀」의 이야기는 외상의 사후 대처와 치유문제 있어 상실된(잃어버린) 기억을 온전히 복원해서 환기시키는 것이 해결책이 아님을 경고한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의식의 흐름에서 가로막히고 누락된 부분이 복구된다고 해서 외상을 입은 사람들의 정체와 삶이 외상을 입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진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도 현실에서 슈테파니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확한 기억의 환기가 가져다주는 마법적인 순간이 없다는 사실을 역설적인 단절감을 통해 증언한다. 현대 트라우마의 원형적인 사건으로 인식되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중 한 사람인 샤롯 델보(Charlotte Delbo)는 “나는 아우슈비츠에서 죽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모른다”(267)고 쓴 바 있다. 베트남 참전 군인들을 상담 치료한 조나단 셰이(Jonathan Shay)는 환자들이 “나는 베트남에서 죽었다”(18)는 말을 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고 한다. 성폭력을 경험한 미가엘 셰러(Migal Scherer)는 “나는 언제나 이전의 나 자신을 그리워할 것이다”(179)고 쓰면서 강간 생존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자기 상실과 삶의 단절감을 표현하고 있다. 상술되었듯이, 트라우마의 사건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감지되는 폭력에 맞닥뜨려 한 인간이 자신을 완전히 무기력하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를 가리켜서 사용되는 말이다. 위협에 처했을 때, 그것과 맞서 싸울 방어태세를 갖추거나 아니면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일반적인 적응 반응들은 성폭력이나 고문 혹은 대재앙적인 사건과 같은 트라우마적 사건에 직면해서 거의 발휘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아의 극복능력을 넘어서는 사건 앞에서 자아가 심한 손상을 입게 되는 이런 상태를 Judith Herman(Judith Herma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사건을 앞에 두고 저항도 탈출도 불가능할 때, 인간의 자기 방어체계는 그 앞에서 압도당한 채 무너져버리고 만다. 위협이 닥칠 때 보인던 일반적인 반응들은 이런 사건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대신 눈앞의 위협이 사라지고 한참이 지난 후까지 그 반응들은 변형되고 과장된 상태로 남아 있곤 한다. (34)

특히 트라우마가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가한 것 때문에 생겼을 때, 그것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세상 속에서 피해자가 보장받아야 할 안전을 파괴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자아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유지되고 있던 유대까지 끊어 놓는다. 의도적으로 가한 폭력으로 외상을 입은 사람은 자신을 (성)폭행하고 고문하는 사람에 의해 단지 물건처럼 취급당한다. 여기서 피해자의 주체성은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 여성학자 수잔 브라이슨(Susan Brison)은 실제 자신이 겪은 끔찍한 성폭행의 고통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 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에서 바로 이런 느낌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아이를 갖기 위해 피임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브라이슨은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뿌리 뽑혀 내동댕이쳐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1990년의 7월 어느 날 오전에 브라이슨은 남편과 동료들을 숙소에 남겨두고 혼자 프랑스 외곽의 평화로운 시골길을 따라 산책을 하고 있었다. 대략 한 시간 반 정도가 흐른 뒤 브라이슨은 어두운 골짜기 아래의 흙탕물 속에 얼굴이 처박혀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고 성폭행을 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성폭행 범이 자리를 떠난 후, 있는 힘을 다해 언덕을 기어 올라간 브라이슨은 한 농부에 의해 구출되었다. 그러나 구출되었다는 안도감은 잠시뿐 이내 끔찍한 후유증이 엄습한다.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당한 그 끔찍한 일 때문에 브라이슨은 자기 몸이 “고통과 두려움으로 얼룩진 몸으로 변했고, 더 이상 성폭력을 겪기 이전의 자기와 동일한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기 몸이 원수처럼 느껴지고 수많은 결점을 가진 것으로 느껴졌다고 한다.

이처럼 허구적 인물인 슈테파니, 그리고 실제 사건의 피해자인 브라이슨과 쉐러, 그리고 많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겪은 자아 혹은 삶의 연속성의 단절감은, 캐시 캐루스를 위시한 현대 지배적 트라우마 이론가들이 트라우마를 구성하는 동시에 그것의 진실성을 보증한다고 주장하는 ‘이해(표상)불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슈테파니의 경우 일어난 사건을 아예 말할 수도, 볼 수도 없다. 그럼으로 그녀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리고 브라이슨과 윙클러의 경우, 일어난 사건을 부분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충격을 정합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과도 통약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언어로 말하여진다면 그 사건은 진실이 오염되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경험 이 된다. 따라서 그 사건의 진실이 손상되지 않고 온전히 전달되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몸과 감각은 트라우마 진실의 담자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비록 피해자들의 몸과 감정을 통해 전달되는 그런 기억들(폭력적인 기억, 악몽, 강박적인 반복행위, 불쑥 치밀고 들어오는 이미지들)이 피해자 자신들에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트라우마의 진실, 즉 낱 선 과거의 실재, 그 사건의 “직접성”(literality)(Caruth 5)을 보증 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외상을 입을 사람들의 편에서 자율적으로 다루어질 수 없는 폭력적인 힘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도래하는 사건”, “트라우마적 기억”을 맞이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사건에 대한 수동적인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해의 바탕에서 볼 때, “도래한 사건”의 폭력적인 재조우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의 가능성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첫 째,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그렇게 일어난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피해자 자신의 삶 속으로 통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외상을 입을 사람의 자아, 즉 “자율적인 행위자로서의 자아”(브라이슨 127)이다. 적어도 치유에 관한한, 피해자의 기억체계에서 해리된 사건이 있는 그대로 복원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외상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외상을 입을 피해자가 과거의 경험을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재맥락화해서 전달함으로써 치유의 가능성이 열린다. 이처럼 사후에 달라진 현실적 맥락에서 과거 다시 말하기를 할 때 극복해야 할 문제는, 기존의 지배적 트라우마 이론이 트라우마의 진실 혹은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고수하려 했던 사건 자체와 자아 정체성, 그리고 외상을 입기 전 피해자의 삶의 풍경의 오염과 변질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다.

Ⅳ. 트라우마적 기억에서 서사기억으로의 전환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피에르 자네(Pierr Janet)는 사건 자체의 정확한 환기(recall)보다는 피해자 개인의 치유에 중점을 두고 트라우마를 둘러싼 일련의 문제를 다루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학자였다. 그런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면술, 암시를 통한 치료, 충격요법 등의 다소 비과학적으로 여겨지는 치료요법들 때문에 그간 그의 기억연구와 심리치료술은 평가절하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정신의학 연구자인 주디스 허먼(Judith Herman)과 반 데르 콜크, 그리고 반 데르 하르트와 같은 현대 구조주의 트라우마 이론가들에 의해서 그의 기억술 치료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바로 그 대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네가 “트라우마적 기억”과 구분하는 또 다른 종류의 기억은 앞에서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네는 기억과 서술의 본질에 관한 고찰에서 “트라우마적 기억”과 “서사적 기억”(narrative memory)을 구별하여 제시한다. 전자는 “과거를 단순히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기억이고, 후자는 “자기 경험을 서사적 역사의 형태로 그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Leys 111) 것이다.

그렇다면 자네가 구분한 두 가지 기억의 형태를 「아듀」에 적용해 볼 때, 필립이 슈테파니의 과거를 되찾아주기 위해 행한 재연작업을 통해 도래한 것은 트라우마적 기억에 다름 아니다. 필립이 충실하게 재연한 ‘실재’ 속에서 슈테파니는 현실의 세계로 돌아온다. 슈테파니가 기억을 되찾았을 때 그녀는 예전의 귀부인으로 돌아왔을 것임에 틀림없지만, 동시에 “그것은 남자들의 욕망과 폭력을 한 몸에 불러들인 사건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마리 67). 귀부인에 대한 그녀의 기억과 함께 도래한 끔찍한 현실은 그녀가 그 현실의 주인으로서 능동적으로 불러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각을 통해 있는 그대로 보존된) 현실이 그녀에게 회귀한 것이다.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쑥 나타난 기억은 그녀 자신의 의도대로 통제할 수 없다.²⁾ 자신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2) 여기서 제시된 “트라우마 기억”의 개념은 케시 캐투스, 반 데어 콜크, 반 데어 하르트(van der Hart)와 같은 현대 트라우마 이론가들의 관점에서 서술된 것이다. 이 기억은 일반적인 사건을 기억할 때 거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왜곡이나 손상

사건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인 슈테파니에게 그 현상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그녀는 폭력적인 사건을 또 다시 고스란히 겪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건처럼 취급되던 자아의 수동적인 상태, “사건 기반 트라우마 모델”의 관점에서 말하는, 트라우마적 진실의 담지자로 말이다. 그렇다면 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자아에게 필요한 것은 물건처럼 취급받는 존재로부터 주체의 고유한 능력을 되찾는 일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주체의 고유한 능력을 앗아간 폭력적인 사건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트라우마적 사건과 맞닥뜨렸을 때 너무 충격을 받고 놀란 나머지 망각된, 그러면서도 나중에 오히려 일반적인 기억보다 더 세부적이고 생생하게 재생되는 ‘트라우마적 기억’은, 피해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폭력적으로 되살아나는 기억이다. 여기서 피해자는 과거 사건의 진실을 고스란히 담지하고 그것을 수동적으로 모방하는 자동기계와 비슷한 존재가 된다. 따라서 자동기계 같은 수동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외상을 입은 피해자는 자신이 그 충격적인 경험

없이 그대로 보존된다는 것이 이들 이론가들의 견해이다. 가령, 캐루스의 경우, 트라우마를 겪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억 속에 사건의 내용들이 왜곡 없이 그대로 기록되는 것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온전히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의 견해에 따르면, 트라우마적 기억은 피해자의 정상적인 의식과정을 거치지 않았고(망각을 통해 트라우마적 사건이 기록되는 역설적인 상황),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의 도래는 피해자에게 첫 대면에서의 충격과 같은 강도의 치명적인 효과를 자아내게 된다. 따라서 말로 표현하기에 너무 끔찍한 공포나 고통의 현실을 생각의 과정을 거쳐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 고통의 현실을 오히려 축소시키거나 은폐하고, 심지어 왜곡시킬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말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인식과 언어능력뿐 아니라 그/그녀가 속한 사회, 정치, 문화적인 해석의 틀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사건 발생과 동시에 피해자가 그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은 있는 그대로 보존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피해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그 생생한 사건을 말로 표현할 수 없거나, 말로 설명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말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의식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실이(있는 그대로의 사실) 왜곡되거나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피해자 자신이 겪은 충격적인 과거의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병리적인 기억 때문에 여전히 병적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트라우마적 경험을 말한다는 것은 병적인 상태로부터의 치유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바로 다음에 설명될 “서사 기억”은 바로 이 병적인 상태의 극복과 관련해서 말할 수 없는 것, 즉 트라우마를 말로 표현하고 극복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다.

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각별히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외상적 사건으로 입은 상처를 완전히 박멸(적출)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자네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조적인 해법을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방법은 ‘트라우마적 기억’을 “서사적 기억”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아픈 상처를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끔히 잘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네가 트라우마적 기억을 “서사기억”으로 전환함으로써 19살의 젊은 여성 환자, 마리(Marie)를 치유한 유명한 사례를 살펴보자. 마리라는 여성은 과거의 나쁜 기억 때문에 히스테리(경련, 섬망, 팔과 가슴 근육의 수축, 다양한 마비, 왼쪽 눈의 히스테리성 실명)를 앓고 있었다. 자네는 이 증상들이 멘스 기간이 되면 시작되고, 동시에 그 기간에서 스물 시간 정도는 멘스가 멈춘다는 것을 관찰했다. 특히 섬망 상태가 되면 피와 불에 대한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불길을 피해 도망을 치고, 스토브와 가구로 올라가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제나 각혈을 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소동을 일으킨 본인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자네는 이런 증상들을 기초로 마리의 히스테리가 초경과 관련 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히스테리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문제의 시점(초경 장면)을 되돌리기 위해서 마리의 동의를 구해 최면을 유도한다.

초경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당시를 마리가 기억해서 재구성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13살 되던 해에 초경을 경험하게 된 마리는 당시 극심한 수치심을 느껴 생리혈을 멈추게 하려고 차가운 물이 담긴 큰 욕조에 뛰어 들어갔다. 그러자 그토록 무섭게 느껴지던 생리혈이 갑자기 멈추게 되었는데 그 충격 때문인지 오한이 들고 며칠 동안 환각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런데 5년이 지나서 다시 이런 증상들이 시작되어서 입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리는 이 모든 것을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기억하지 못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자네가 유도한 최면상태에서 마리 자신이 목격해서 말한 당시의 장면들이다. 자네는 마리가 정확히 떠올린 바로 그 문제의 과거 장면에 개입해서 그녀의 잘못 고착된 관념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확신을 준다. 멘스는 3일 동안 지속될 것이며 그 사이 어떤 불행한 사건도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Leys

106-107 참조). 자네의 기록에는 실제로 그 다음 주기가 돌아왔을 때 멘스 주기가 되면 언제나 마리를 괴롭히던 증상들이 사라졌다고 서술된다.

그런데, 자네가 치료를 담당한 또 다른 여성 환자인 이레네(Irene)는 앞의 마리의 사례와 같이 중국에는 치료가 되었다고는 암시되지만, 치료과정에서 “서사기억”으로의 전환이 실패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레네는 엄마의 죽음 때문에 외상을 입은 여성이었는데, 엄마가 죽고 난 뒤에도 그녀는 상실의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다. 대신 몽유적인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엄마의 죽음의 장면을 재연할 뿐이었다. 위기 상황에 처하면 이레네는 엄마가 돌아가실 때 그녀가 간호했던 정확히 그 태도를 또 다시 취했다. 앞의 설명들에 비추어볼 때, 이레네의 태도는 사건과 직결된 행위의 재생산(조건반사적 행위처럼)일 뿐 그때의 경험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이레네에게 그 사건(죽음의 사건)은 망각, 즉 “주체의 자율성”을 대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녀 자신의 삶의 역사로 흡수(통합)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엄마의 죽음이라는 원사건과 현재 이레네의 망각을 통해 무의식으로 되살아나는 과거가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어야만 엄마의 죽음은 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엄마의 죽음이 인식될 때, 비로소 이레네는 엄마가 부재하는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의 삶을 설계할 힘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서사기억”은 바로 이 원사건과 망각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과 연결(통합)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연결 작업으로서의 “서사 기억”은 고통스럽고 불쾌한 기억을 완전히 잘라서 박멸하는 것과는 분명 다르다. “서사기억”은 생존자가 겪어야 했던 사건을 인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들어주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자기 삶에 “불쑥 치밀고 들어오는 트라우마를 이전 삶과 이후의 삶 속으로 통합”(브라이슨 162)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래하는 사건”이 외상 주체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게 다스리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리의 사례가 보여 주듯, 외상의 주체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자네는 바로 이 이야기 행위를 “현시화”(presntification)³⁾, 즉 “자기-관찰과 자기 재현 행위”(Leys 112 재인용)

로 부른다. 그 만큼 “현시화”는 외상을 입은 사람이 현재를 현재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그녀 자신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와 현실, 그리고 실제 경험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 작업과정에서 생존자는 자기가 처음에 겪었던 트라우마를 자신 뿐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청자까지 포함해서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재조우하고, 과거에 겪었던 수동적인 반응과는 다르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일종의 시간차 교정행위를 한다.

이 같은 사후적인 교정 작업은 도미니크 라카프라(Dominick Lacapra)가 “정면통과”(working through)(90)라고 명명한 특별한 기억개념과 일맥상통한다. 라카프라의 정의에 따르면, 과거를 “정면통과”한다는 것은 “일어난 일을 현존감을 잃지 않고 떠올리는 것”(90)이다. 말하자면 외상을 입은 사람은 지금 현재에서 과거를 있는 그대로 “시연”(enactment)하고 있지만, 바로 이 과정에서 생존자는 “과거를 개조하고 정면통과 하는 자아의 다른 차원을 갖는 것이다”(Lacapra 90-91). 이 다른 차원의 자아가 “강박적으로 되풀이되는, 외상적 과거 되살이를 되받아치게 된다”(Lacapra 91). 가령 전술된 자네의 환자인 마리의 경우, 초경 장면을 떠올려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마리는 극심한 외상을 입은 피해자로 과거를 되살이(초경의 순간과의 재조우)해야 하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엔 과거경험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그 혼란과 한 덩어리가 되는 대신에 그것과 거리를 두고 그 순간을 관찰하고 주시한 것을 청자인 자네에게 재구성해서 이야기 해준다. 이때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리는 현재의 청자에게 과거의 경험을 재맥락화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는 “부재한 현재를 재현”(Leys 112)하는 “현시화”를 수행한 것이다. 자네는 바로 이 “현시화”의 수행 결과 마리의 고통스러운 증상들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요컨대 이 같은 마리의 치유 사례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상기해서 곱씹어야 진실이 전해지고, 또 진짜 우리가 되며, 그럼으로써 과거로 인해 받은 고통

3) 여기서 “현시화”는 “기호적 매개를 통하지 않은 직접 나타남”을 뜻하는 “현시”(presentation)를 떠올리게 한다(이명호 110). 그러나 “현시화”는 자기 관찰이라는 거리와 청자가 매개된다는 점에서 프로이트적 의미의 “현시”와는 차이가 있다.

과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과거의 경험(사건)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하고 동일시하며, 자기에게 떠올려지는 이미지와 장면들이 무엇인지 모르고 보는 자기-분열적인 상태를 인식하고, 그 상황을 자기-통합적인 상태로 변형시키는 “정면통과”의 과정, “서사 기억”행위가 보충되어야 보다 온전한 치유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V. 결론을 대신해서

전술된 마리와 이레네 치료과정은 외상적 사건을 사후적으로 대응하고 외상을 치유할 때, “서사 기억”이 갖는 유용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자네가 유도한 “서사기억”의 과정 속에는 여전히 외상 주체의 자율성과 행위 능력의 결함이 포착된다. 최면을 통해 환자가 떠올린 기억은 상당부분 의사인 자네의 도움을 받아 얻어진 결과물로서 환자 본인의 능동적인 의지가 다소 결여되거나 말하여진(기억된) 내용이 의사 혹은 치료사의 의도에 따라 왜곡될 위험의 소지가 있다. 그런 까닭으로, 현대 정신의학 전문가와 트라우마 연구자들은 자네의 “기억서사”를 중요한 치료방법들 중의 하나로 채택하면서도 그가 사용한 ‘최면술’은 대개 거부한다. 오늘날 다양한 트라우마 치유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현대 정신의학의 영역과 문학의 영역들은 최면술과 같이 의심스러운 도움의 손길을 경유하지 않고 생존자 본인이 외상적 사건을 되짚어보고 이야기하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다른 방식들을 제시한다. 가령 자서전 쓰기, 증언(고백록), “글쓰기 치료”(scriptotherapy)(Henke)(112), 그리고 자기 삶의 글쓰기(life-life writing) 등의 형태가 그것들이다. 이들 중 자기 삶의 글쓰기는 최근 들어 각계각층에서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는 용이한 방식으로 환영받고 있다. 앞에서 설명된 강간 사건의 생존자인 브라이슨도 자기-삶의 글쓰기를 통해 그녀의 트라우마를 “정면통과”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생존자의 자아는 일시적으로 능동적인(이야기 하는)주체와 좀 더 수동적인(이야기 되어지는) 대상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되지만 해도 생존자는 트라우마를 겪으며 물건처럼 취급됐던 자아를 다시금 주제로 끌어올릴

수 있고 스스로에게 좀 더 많이 공감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이 있는 지 수개월이 지난 후, 나는 간신히 내가 겪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 있었는데, 쓰고 나서 그것을 읽었을 때에야 비로소 “말로 안돼,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니!”하고 깨달았다. (165)

브라이슨과 같이 “글쓰기로 트라우마를 정면통과 하는 일”(writing through trauma)(Micciche 131)이 보다 치유적인 효과를 갖는 이유는 글을 쓰는 저자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담론 안에서 그들 자신을 동인으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우리가 되새김질해야 할 중요한 대목이 있다. 트라우마적 사건의 생존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건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를 복구해서 전달하는 것과 사후 재편된 환경에서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트라우마적 경험을 재맥락화하는 것 사이의 긴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긴장의 관계 속에서 트라우마를 쓰는 저자가 자신의 온전한 행위능력과 주체성을 찾고 치유에 보다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변형과 변화의 과정을 비약적으로 뛰어 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염두에 필요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슐라 르 귄의 조언(Ursula Le Guine)은 유용한 지침이 된다.

자신이 예전에 썼던 글을 새로운 생각으로 다시 완전히 고쳐 쓰는 일은 옮겨나 현명한 일로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 자신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거쳐 왔어야만 했던 그 흔적들을 지워버리는 일이다. 오히려 자신의 사고방식이 변했다는 사실과 그 변화의 과정을 증거로 남게끔 하는 것이 여성주의 방식인 것이다. (7)

말하자면, 수술로 환부를 도려내 제거하듯, 가공할 만한 과거 괴물의 힘을 단 한 번의 글쓰기로 제압될 수 있다는 마술적인 믿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믿음은「아듀」의 남자 주인공인 필립이 가졌던 마술적 바람과 크게 다를 바 없지 않겠는가. 그보다는 다시 쓰는 기회를 더 많이 생겨나게 함으로써, 그 기회들 속에서 자기 능력의 변화를 피하고, 그 변화를 통해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잠재적인 위험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하는 일이 보다 현실적인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 참고 문헌

- 오카, 마리, 『기억·서사』, 김병구 옮김, 소명출판사, 2004.
- 수잔, 브라이슨, 『이야기 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 여성주의 번역모음 ‘고픈’ 옮김. 인향, 2003.
- 오노레, 발자크, 「아듀」, 『사랑과 행복의 비밀』, 강주현 옮김. 큰나무, 2000.
- 이명호, 『누가 안티고네를 두려워하는가: 성차의 문화정치』, 문학동네, 2014.
- 주디스, 허먼, 『트라우마 :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최현정 옮김, 플래닛, 2007.
- CARUTH, Cathy, “Trauma and Experience: Introduction,” *Trauma: Exploration in Memory*.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96.
- DELBO, Charlotte, *Auschwitz and After*, Trans. Rosette Lamont, New Haven: Yale UP, 1995.
- GIBBS, Alan, *Contemporary American Trauma Narratives*, Edinburgh: Edinburgh UP, 2014
- FELMAN, Shoshana, *The Juridical Unconscious: Trials and Traumas in th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Harvard UP, 2002.
- HENKE, Suzette, *A Shattered Subjects : Trauma and Testimony in Women's Life-writing*, New York: St. Martin's P, 2008.
- HUYSSSEN, Andreas, *Present Pasts : Urban Palimpsests and the Politics of Memory*, Stanford: Stanford UP, 2003.
- JUDITH Greenberg, “Wounded New York,” *Trauma at home: after 9/11*, Ed. Judith Greenberg, Lincoln: U of Nebraska P, 2003.
- LACAPRA, Dominick, *History in Transit: Experience, Identity, Critical Theory*, New York: Cornell UP, 2004.
- LEGIN K, Ursula, *Dancing at the Edge of the World: Thoughts on the Words, Women*,

- Place. New York: Grove, 1989.
- LEYS, Ruth, *Trauma: A Genealogy*, Chicago: U of Chicago P, 2000.
- MEEK, Allen, *Trauma and Media: Theories, Histories, and Images*, New York: Routledge, 2010.
- MICCICHE, Laura R, "Writing Through Traum,," *Composition Studies*, 29.1(2001): pp.131-141.
- RADSTONE, Susannah, "Trauma Theory: Context, Politics, Ethics," *Paragraph* 30.1(2007): pp.9-29.
- ROSS, Gina, *Beyond the Trauma Vortex: The Media's Role in Healing Fear, Terror, & Violence*, Berkeley: North Atlantic Books, 2003.
- SHACTER, Daniel, *Searching for Memory: the Brain, the Mind, and the Past*, New York: Basic Books, 1996.
- SHAY, Jonathan, *Achilles in Vietnam: Combat Trauma and the Undoing of Character*, New York: Atheneum, 1994.
- SHERER, Miggel. *Still Loved by the Sun: A Rape Survivor's Journal*. New York: Simon & Schurster, 1992.
- TAL, Kali, *Worlds of Hurt: Reading the Literatures of Trauma*, New York: Cambridge UP, 1996.
- VAN del Kolk, Bessel and Fisler, Rita, "Dissociation and the Fragmentary Nature of Traumatic Memories: Overview and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Traumatic Stress*, 8.4(1995): pp.505-525.
- YOUNG, Allan, *The Harmony of Illusions : Invent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rinceton: Princeton UP, 1995.

❖ ABSTRACT

The Active Way of Trauma: Receiving the Return of the Past

Seoh, Gil-Wan

Trauma studies have provided useful models for dealing with the catastrophic and disastrous events that an individual and collective group experience. Most important of all, the perspective of post-structuralist trauma study, including Cathy Caruth, became a paradigmatic model and it has been applied to almost all contexts of life. The perspective of this study model, which is called an “event-based model of trauma,” focuses on the literal registration of the traumatic event and the accurate and immediate recall of the past.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in the event becomes the passive bearer transmitting the truth of a traumatic event. From this perspective, the traumatic subject only undergoes and endures the event and cannot play an active role in constructing trauma and dealing with it. Eventually, the truth of trauma has to be obtained at the cost of the traumatic subject’s autonomy and the possibility of his/her agency.

The problem here is that the truth, which is reencountered through the literal return of the past, obtained at the cost of the subject’s autonomy, strikes a rather fatal blow to the person, than gives help for resolving many of matters surrounding traumatic experience and curing trauma. This suggests that the active way of dealing with trauma on the part of the traumatic subject, rather than the traumatic event itself, is demanded. Furthermore, because more recently, images of disastrous events were viewed “live” by audiences and an immediacy to the event is replicated in public discourse about them, the event becomes more immediately traumatic and there is a more strong presumption that people regard themselves as traumatic victims than before. This is the reason that we must explore an active way dealing with trauma on more human position at this time.

This essay aims to examine the limits of the paradigmatic model of trauma study, an “event-based model of trauma,” critically through a literary, theoretical text in which it reveals how the literal return of the traumatic past have a fatal effect on the victim; and hopes to suggest “the narrative memory” as a way to

deal with trauma from a more humanistic perspective.

Key Words

Trauma, “event-based model of trauma,” the literal return of the past, “narrative memory,” the traumatic subject’s autonomy

논문접수일: 2015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08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09일